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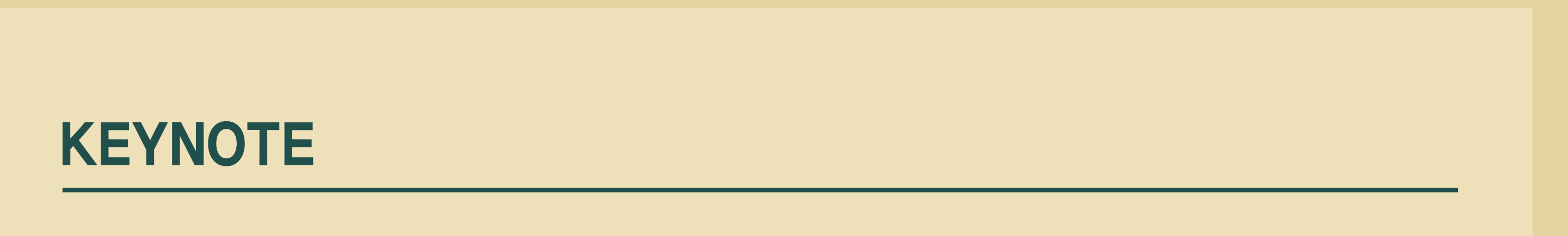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와 공공디자인

디자인페스티벌 7.2

2022학년도 가을학술대회

동서대학교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可持續的文化城市與公共設計



KEYNOTE



기조발표
이순종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발표제목
지속가능한 도시창조와 디자인: Social Innovation and design

창의와 문화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자인의 역할이 산업과 조형을 다루는 과거의 단순한 전문성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를 혁신시키는 보다 복합적이고 공공적인 역할로 확대되고, 디자인의 내용도 하드웨어를 넘어 문화와 콘텐츠 등의 종합적인 디자인(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예술 디자인이 중시되는 문화시대를 맞아 세계의 창의도시들은 문화-예술-디자인(가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와 도시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혁신시키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세계의 우수한 창의문화도시와 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하여 지속가능디자인의 방법과 도시창조를 위한 디자이너의 역할을 살펴본다.

주旨发表
LEE Soonjong (首尔大学 设计学院 名誉教授)

发表题目
可持續的都市創造和設計: 社會創新和設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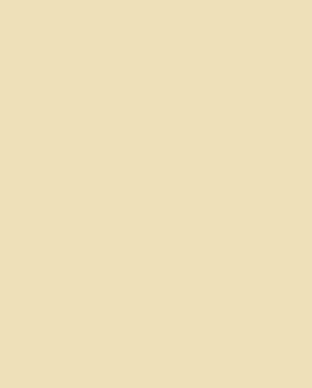
進入創意和文化的時代以後，設計的作用從過去的涉及工業以及造型的單純專業性擴大到創新可持續城市和社会的具有更大的綜合性和公共性的作用，設計內容也超越硬件，指向着文化和內容等的綜合設計價值。特別是重視藝術、設計的文化時代的到來後，世界的創意城市通過基於文化、藝術、設計的多樣化政策，激活工業和經濟，向可持續的方向推進社會和城市系統的创新。在本發表中，將通過世界的優秀創意文化城市和項目的案例，考察可持續設計的方法和設計師在城市創造中的作用。

Keynote speech
LEE Soonjong, Emeritus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itle
Social Innovation and Design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creation and culture, the role of design has shifted from merely professional one that deals with industries and sculptures to a more complex and public role of innovating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Accordingly, the details of design have been recently oriented towards creating comprehensive design value, beyond hardware-oriented value. In the era of culture that emphasizes arts and design, creative cities in the world have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on culture, art, and design to promote industries and economy and innovate society and urban systems in a sustainable manner. During this presentation, we will review exemplary cases of creative and cultural cities and relevant projects worldwide and examine sustainable design methods and the role of designers for city creation based on the case analysis result.

주제발표



주제발표
줄리엣 E. 토라비안 박사 (룩셈부르크 대학교)

발표제목
교육을 위한 공동재로서의 도시와 대학

본 강연에서 줄리엣 E. 토라비안 박사는 모든 시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과 교육을 가능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대학과 도시의 상호 작용과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그는 지속가능발전의 시대에 대학들은, 개방적인 디자인, 영업시간, 도서관, 그리고 공공의성과 도시와 공유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환경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발전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학이 그린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이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대학의 정책과 실천, 그리고 교육에 스며들어야만 하며, 포용적이고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으로서 대학과 도시의 공동 목표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主题发表
Juliette E. Torabian (卢森堡大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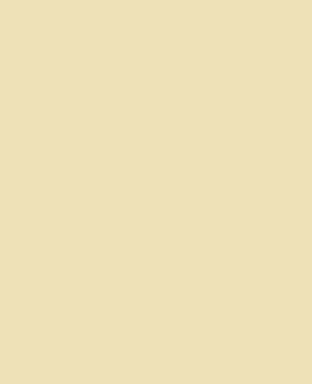
发表题目
作为为学习的共同财的城市和大学

在本讲中, Juliette E. Torabian博士在为所有的市民营造转换为可持续发展以及对其教育方面,对于“使其成可能的环境”的营造,考察大学和城市的互动以及关系。她在主张在可持续发展时代的大学应该通过开放的设计,营业时间,图书馆,以及公共讲座,还有跟城市共有的叙述,等等,打造为促进转换为社会正义,环境的可持续性,以及包容性的经济发展的基础。而且,她还主张虽然大学打造绿色校区只是一个能够首先进行的初级可视阶段,但可持续发展应该渗透在大学的政策、实践、教育里,还有作为将包容性、教育成为可能的环境,可持续发展应该和大学以及城市的共同目标相结合

Main presentation
Dr. Juliette E. Torabian (University of Luxembourg)

Title
Cities and their universities as common good for learning

A short outline of the talk: In this talk, Dr. Juliette E Torabian examines the interplay and relations of universities and cities in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learning and shifting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citizens. She argues that at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iversities shall- by their open designs, working hours, libraries, and public lectures and shared narratives with the city- create the basis for an accelerated shift towards social justi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She argues that creating a green campus is only a first and most tangible step but sustainable development shall permeate policies, practices, pedagogies of universities and bind the common aims of cities and universities as an inclusive and enabling learning environment.



주제발표
윤희철 센터장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발표제목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실현 방안

도시는 위기인가 또는 기회인가? 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지만 새로운 위기에 봉착한 공간이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양극화가 있고,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도시도 발전의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그린리트로 도시를 덮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며, 저탄소 생활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물순환,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생태교통을 일상의 도시환경에서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 방안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실현적 방안이 될 것이다.

主题发表
YUN Heecheol (韩国可持续发展中心 院长)

发表题目
为达成SDGs的可持续城市和实现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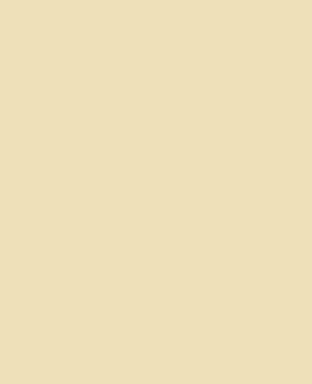
城市是危机还是机会? 虽然城市是我们生活的基础, 但也是面临危机的空间。在眼前出现了经济危机和社会的两极化, 而且需要积极应对即将到来气候危机。

随着从急速的工业化、城市化、高速增长进入到低增长时代, 城市也需要转换发展模式。为了找到脱离用混凝土覆盖城市、消耗过多能源、大量生产和消费的中心的方法, 探索在日常城市环境中实现水循环、能源转换、资源循环、生态交通的方法。实现可持续城市的方案将成为达成可持续发展目标(SDGs)的实践方案。

Main presentation
YUN Heecheol, President of the Korea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itle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Measures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Does a city present risks or opportunities? A city is a place of living for us. Simultaneously, it is a space that faces new risks. Cities should overcome current issues, such as economic crisis and social polarization, and actively respond to the upcoming climate crisis. Our society has entered the era of low growth from that of rapid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swift growth. City development measures should also be transformed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Cities have been the center of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characterized by concrete covering the entire area and excessive energy consumption. This presentation examines methods for implementing daily urban environment based on the water cycle, energy conversion, resource recycling, and ecological for achieving to improve cities. Sustainable city implementation measures will serve as practical strategies for attaining SDGs.



주제발표
노메다 구델리엔 박사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

발표제목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이행.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2015년 전 세계 150개국의 정상들이 뉴욕에 모여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세계를 구하는 의제 2030에 합의했다. 환경, 경제, 사회 개발이라는 세 가지 중심축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인 발전 경로는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5가지 중요한 영역을 다루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동 촉구이다. 우리 세대는 급속한 산업화, 세계화 및 소비주의로 인해 제기 동안 우리 선조들이 이룬 것보다 인류와 다른 생명체 등 지구상의 생명에 더 많은 해를 끼쳐왔다. 따라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지식 자산과 전 세계에 걸쳐 현대가 개발한 지식 자산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 빈곤, 불평등에 대처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의 도시, 문화, 인프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건강을 향유하며, 미래 세대에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변화를 만들고 긍정적인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 누구나 본인의 삶의 방식과 다른 생명을 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훌륭한 리더십의 자질은 무엇일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 훌륭한 리더십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리더십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主题发表
Nomed Gudielienė博士 (米科拉斯罗梅里斯大学)

发表题目
可持续发展目标的履行。所有的人都能成为领导人。

2015年, 全球150个国家的首脑聚在纽约, 会议了救助世界的17个可持续发展目标等的议题2030。基于将环境、经济、社会开发的三个领域作为中心轴的长期发展路径是为了对待人类、地球、繁荣、和平、伙伴关系等的5个重要领域, 转告给全球人的行动敦促。由于急速的工业化、世界化, 以及消费主义, 我们世代对地球上的生命体扰害得比活在前几个世纪的祖先更严重了。因此, 在祖先留下了知识资产和当代开发的全球知识资产的基础上, 需要寻找应对气候变化、贫困、不平等的创新方法。为了使我们的城市、文化、基础设施成为可持续, 享受健康, 给未来世代留下肯定的遗产, 需要的是对于自下而上的(bottom-up)领导力的新的发展方式, 而不是需要自上而下的(top-down)方式。所有的人都能成为领导人。所有的人都能改变自己的人生, 留下肯定的足迹。所有的人都能选择对待本人的人生方式和生命的方式。好领导人的素质是有什么? 为了履行可持续的发展, 如何运用领导力? 我们都要学习领导力技术, 随着自己的能力和才能利用它。

Main presentation
Dr. Nomed Gudielienė (Mykolas Romeris University)

Title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veryone Can be the Leader.

In 2015 leaders from 1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met in New York and agreed on the world saving Agenda 2030, which include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long-term development path based on three pillars -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is call-to-action for people worldwide to address five critical areas such as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and partnership. Our generation through rapid industrialisation, globalisation and consumerism has made more harm to life on the Earth for humans and other living creatures than our forefathers and foremothers had made through centuries. Therefore, building on the capitalised knowledge we have inherited from our ancestors and developed by our generation people across the globe we have to look for innovative way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poverty, inequalities. To make our cities, cultures, infrastructure sustainable, living healthy and leaving a positive heritage upon the future generations we need a new approach to leadership - bottom-up and not top-down. Everyone Can Be the Leader. Everyone can make a change and leave a positive footprint in his or her life. Everyone can choose how to live and treat others. What are the qualities of good leadership? How can they be employed for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Everyone needs to learn leadership skills and apply them according to his or her talents and gifts.



주제발표
윤지영 교수 (동서대학교)

발표제목
부산 영도 광강이예술마을의 공공디자인과 지속가능성

부산의 산 역사를 보여주는 영도 대평동 광강이예술마을의 도시재생을 공공디자인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광강이예술마을은 도시재생을 통해 물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전문가, 주민, 도시재생센터 등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장소로 변모하였으며 특히 예술문화와 관련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재생 후 마을의 이미지는 지역성을 반영한 공영예술 및 공공디자인으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및 설문결과, 대부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그러하듯,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 접근성, 편의시설의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장소성의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主题发表
YOON Jiyoung (东西大学 设计学院 环境设计专业 教授)

发表题目
釜山影岛奚琴艺术村的公共设计和可持续性

本发表从公共设计和可持续性的角度来讲表现釜山活生生的历史的影岛大平洞奚琴艺术村的都市再生。奚琴艺术村是通过都市再生带来了物理、环境方面的许多变化, 并且通过专家、官员、都市再生中心等的努力, 基地成为又安全即有趣的地方, 特别是能够提供许多艺术文化相关的看点。再生以后艺术村的形象被肯定的评价为反映地域性的公共艺术以及公共设计。但是采访和问卷调查的结果显示, 和大部分的都市再生项目一样, 地区居民的经济困难和社会矛盾, 恶劣的居住环境和交通的接近性, 便利设施的不足等仍然是需要解决的问题。为提高地区居民的生活水平, 需要在可持续的角度来探索构建进行的场所性的方案。

Main presentation
YOON Jiyoung, Professor at Dongseo University

Title
Public Design and Sustainability of the Kangkangee Culture Village in Yeongdo, Busan

The Kangkangee culture village located in Daepyeong-dong, Yeongdo, Busan, displays the history of this city. This presentation analyzes urban regeneration performed in this villag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esign and sustainability. The Kangkangee culture village has undergone significant physic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rough urban regeneration work. This villag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afe and fascinating place owing to the efforts of experts, public officials, residents, urban regeneration centers,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people. This village provides various types of attractions and events related to arts and culture. It has been positively evaluated as a place of public arts and design reflecting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since it was enhanced by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Howeve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on the Kangkangee culture village faces problems, which are also observed in mos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conducting interviews and surveys indicated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on the Kangkangee culture village should overcome challenges, such as economic difficulties of residents in this village, social conflicts,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low accessibility to transportation, and insufficient convenient facilities. Hence, new sustainable methods must be developed to establish a sense of place in the Kangkangee culture village, which can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of residents in this village.